

#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의 개념

李彰洙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부연구위원  
cslee@kiep.go.kr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및 중국의 부상, 자원동원방식에 의한 후발국형 성장기회의 소멸이라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주춤거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적극적 개방에 의한 구조개혁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은 현실적인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시장경제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동북아 거점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두 목표를 상호작용 속에서 동시에 얻고자 하는 장기비전이다.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현방안(4월 4일)은 내용상으로 본고와 동일하나 우리나라 전역, 전문야에 수혈되어야 할 개방 및 국제기준을 한정된 지역에,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적용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후 성공할 경우 개방 및 국제기준은 전국, 전문야로 확산될 것이다.

## 1. 서론

2002년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이 발표된 이후 4월 현재 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동 구상은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세계 우수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점화정책으로, 중심항만 및 중심공항 등 물류부문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동북아 금융중심지의 비즈니스부문으로 양분된다. 전자의 경우 뚜렷한 방향 및 개념이 이미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고에서는 후자의 비즈니스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이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이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영전략이라고 계속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적 실체가 다소 모호한 감이 있었다. 그 간 비즈니스 중심지화에 대한 논의가 사업차원에 집중되었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비즈니스부문 거점화 전략의 의미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장기적 구조변화 및 대내외 환경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포착함으로써 동 전략의 올바른 위치 및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마디로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된다는 것은 동북아경제에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은 동북아지역의 제조업 등 제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웃나라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해 한국경제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험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싱가포르는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적 제조업 기반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가로 이전시키고 이들을 통제하는 고부가가치 거점기능만을 수행하면서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거점화 전략 추진의 필수적 요건으로 거점역할 수행관련 경제활동에서의 경쟁력 확립과 전면적 개방정책을 거론할 수 있겠다. 특히 R&D 네트워크 및 능력, 경영컨설팅·법률·마케팅 등 사업서비스업 및 국제금융관련 서

비스업의 발전, FDI의 적극 유치 및 국제규범의 기업활동 시스템 확립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비즈니스부문 거점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특히 사업서비스업 및 금융서비스업이 발전하고 글로벌화하여 동북아시아 생산활동을 지원하게 된다면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나아가 아태지역 지역본부가 국내에 입지하는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서비스 및 국제금융시장이 잘 발전된 곳에 지역총괄본부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거점화 전략은 홍콩·싱가포르 등 도시국가형 거점화와 차별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국민경제 규모의 차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들 도시국가에 비해 영어사용 능력, 개방성, 국제규범 등에 있어 뒤쳐져 있지만 제조업 및 관련 R&D 능력, IT 등의 부문에 있어 앞서 있는 질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거점화가 주로 물류 부문 및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등에 한정되어 발생했으나, 우리는 이와 함께 제조업관련 거점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부품 및 중간재의 동북아 공급기지, 동북아 R&D 활동의 거점화 및 첨단산업 유치 등으로 동북아경제 전체의 제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한국경제의 고부가가치화, 기술집약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 2. 국내의 환경변화와 비즈니스 거점화

공업화 및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 중화학공업화 및 자본집약적 제품 수출 등 강력한 자원 동원방식에 의한 산업화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시현했던 한국경제는, 시장기구의 작동 및 창의력·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원천을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에서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한 바 있다. 제도, 관행, 의식에 있어서 국제기준이 통용되는 시장경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식과 혁신으로 주력 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는 시대적 명제가 이해집단간의 갈등심화로 뒷전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와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 개방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에서 찾고 그 추진 전략으로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화를 상정할 수 있겠다.

다국적기업의 영업, 금융, 물류, R&D 및 IT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유치, 발전 시킨다면 자체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제조업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경제에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적인 생산기지화, 동아시아 경제자원의 중국 집중 등은 우리에게 위협요인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적절한 대응이 강구될 경우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숙련기술인력 공급이 보장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시장 진출을 겨냥한 구미계 다국적기업들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의 거점으로, 즉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시장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핵심부품 및 자본재 생산이 확대될 것이며 관련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 및 중국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일부 첨단·미래 산업부문에서 양국간 공동연구·개발 등 산업협력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기술발전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 3. 산업구조의 변화와 동북아 거점화 전략

### 가.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

향후 20년간 우리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외국계 다국적기업 진출로 급속한 조정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겠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되면서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의 진전과 함께 사업서비스산업(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이 발전하며 한국제조업의 지

속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0년 현재 4.1%인 사업서비스업의 대GDP 비중은 미국 7.6%, 일본 5.8%, 프랑스 11.5%(이상 1999년)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제조업에서 기술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영 컨설팅, 마케팅, R&D, 인재 파견, 회계서비스, 법률서비스, 산업디자인, 아웃소싱 등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산업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참조 부표 1). 제조업의 경우 부문 자체의 성장률은 경제전체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9.2%, 2000년 28.8%에서 2010년 27.7%, 2020년 26.2%로 점차 낮아질 것이다. 즉 비용우위의 유지를 위하여 저부가가치 공정의 해외이전이 계속되고 주요 수출상품의 현지생산이 확대되어 수출비율이 감소하며 이로 인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내부의 산업간 산업내 경쟁의 심화로 2000년대 초반 급속한 산업구조조정을 거칠 것이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고기술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제조업내의 개별산업들을 보면 전자 전기와 자동차에서는 해외연구개발, 기업인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핵심역량이 축적되고 해

외자회사의 경영자원도 확충되는 등 국내기업의 다국적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수출비율이 저하될 것이나, 완제품의 수출은 현지생산으로 대체되고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중공업에서는 주력사업인 조선이 상당기간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이나, 조선사업의 비중은 저하될 전망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기술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다국적기업이 연구개발의 합리화를 위하여 국내에 아시아지역 연구개발거점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기초과학의 연구기반이 중요한 정밀화학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현저하며, 기계산업 또한 격차가 심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산업들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진출에 의한 산업기반의 확충과 이에 따른 지식집약화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아시아지역을 위한 기술개발거점화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수입대체와 수출증가도 예상된다. 섬유 의류에서는 비용우위를 상실하여 선진국 의류시장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제조업부문의 외주화와 경제의 서비스화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상회하며, 상대가격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은 1990년의 43.6%, 2000년에 46.9% 수준에서 2010년에 49.9%,

2020년에는 53.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으나, 비교역부분의 비중이 높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산업의 지식집약화와 세계화와 수반하여 경영 기술 마케팅 컨설팅, 정보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제조업지원 사업서비스도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소득수준의 향상, 금융자산의 축적,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등이 진전되어 금융서비스, 의료 보건, 디지털 콘텐츠 등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는 사업서비스, 금융, 정보통신, 유통·물류 등에서는 전문지식 및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확산, 기업문화와 산업조직의 개선 등으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 나. 동북아 거점화 전략

우리나라 대내외 환경변화 및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고려할 때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비즈니스부문의 동북아 거점화 전략을 상정할 수 있겠다. 이를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 및 중간재부문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생산, 수출 및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개도국의 완제품 시장잠식에 대응하면서 자본재·중간재의 교역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산업구조

의 형태로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세계적 부품·소재 기업과의 제휴 및 이들의 국내 유치를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적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의 고기술 지식집약화와 함께 동북아 거점화가 진전됨에 비례하여 기술혁신능력의 구축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 3대 경제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1990년대에 들어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하여왔으나 다른 산업분야로 파급되는 속도는 선진국들보다 완만한 실정이었다. 향후 IT산업의 소프트웨어적 기술능력 제고와 함께 비IT산업부문으로 IT화가 확산되어 IT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을 신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에 접목시키면서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가게 될 것이다.

넷째,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우 2010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컨설팅, 마케팅, 회계 등 사업서비스업의 발전 및 제조업체의 서비스 기능 분리화(외주화)가 국내기업은 물론 중국제조업 나아가 동북아 전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산업에서 국제화가 진전될 것이다. 금융의 국제화는 선진 금융기법의 국내 확산을 촉진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서비스 공급자들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수요자중심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수요자들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다. 금융 국제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우리의 금융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함으로써 해외자본이 국내 투자시 겪는 제약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은 동북아경제권에 속한 국가들과 연계시키고 협력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구조변화를 달성하는 거점화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서비스업 및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세계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유치를 견인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 4. 부문별 비전 및 과제

##### 가.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

향후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은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한 시장확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장기적으로 숙련된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경제권 개도국들의 산업화에 조달될 핵

심부품·중간재·자본재 공급기지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의 주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생산하기에는 인건비가 높고 중국에서는 기술력이 낮아 생산하기 어려운 핵심부품 및 자본재 산업부문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보완될 경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나. 동북아 R&D센터

경쟁우위 품목을 확장하고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아가 핵심부품·자본재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R&D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선진국과의 지식격차가 큰 부문에서는 외국의 선진기업 유치를 통하여 혁신능력의 배양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북아 R&D 거점의 역할을, 즉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기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에 유리한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응용연구와 상업화 연구를 수행하는 우수한 연구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연관산업의 혁신기능을 집적하는 동시에 혁신활동의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 다. 첨단산업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은 산업발전단계상 현재 도입기 및 성장기 초기에 진입한 산업으로 향후 10년간 빠른 기술혁신과 고성장이 예상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속적 발전으로 전체 산업에서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고, 효율적 생산공정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상거래는 그 자체로 성장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적극적인 개방화를 통하여 아시아지역 등 인터넷 비즈니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크게 발달하지 못한 동아시아 인터넷센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서버를 유치하여 아·태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라.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지원 서비스는 전형적인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전문인력, 선진경영기법 및 조직관리 기술 확보를 위하여 개방 및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점진적 구조고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의 유치 및 전략적 제휴 등으로 서비스의 기업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회계, 법률, 경영컨설팅, 광고 등 사업서비스의 강화는 제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 걸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므로 우선적 육성이 필요한 부문이다.

사업서비스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지원 사업서비스의 외주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제조업체의 핵심역량 강화 및 사업서비스업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마. 금융중심지화

금융의 국제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아 자본제약의 해소, 선진 금융기법의 전수 등 국제화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시장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율성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불안,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발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 둘째, 금융기관 경영의 수익성 제고능력 및 투명성 확보 셋째, 금융시장 하부구조로서의 신용평가 및 금융감독시스템 선진화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5. 요약 및 정부의 실현방안

본고는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및 중국의 부상, 자원동원방식에 의한 후발국형 성장기회의 소멸이라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머뭇거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적극적 개방정책에 의한 구

조개혁신 및 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화, 기술집약화)로 지속발전을 도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류 거점화를 논외로 하고 비즈니스 거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은 적극적 개방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시장 경제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동북아 거점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상호작용 속에서 동시에 얻고자 하는 장기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정부는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도, 송도신도시 및 김포매립지 지역을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물류거점으로 인천국제공항지구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 국제업무거점 및 지식기반산업 거점으로 송도 신도시가, 국제금융 거점으로 김포매립지가 지정되었다. 특구내 영어공용화, 외국통화허용,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진입 허용,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주거비 및 교육비 비과세 및 공제, 외국전문인력

유치관련 출입국 제도 개선 등 외국인에 편리한 기업 및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의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은 내용상으로 본고의 장기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맥락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단 우리나라 전역, 전분야에 수혈되어야 할 개방 및 국제기준을 한정된 지역에, 외국인투자 중심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생산기술,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 고부가가치화·고기술집약화의 장기비전과 연계된 전략적 가치들이 보다 강조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경제특구' 접근방식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후 성공할 경우 개방 및 국제기준은 전국, 전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전국, 전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 참고문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단. 2002.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단.  
이진면·김동석·김민수. 2002. 4. 『다부문모형에 의한 산업구조변화의 장기전망』. 한국개발연구원.

이창재 외. 2000. 1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01.12. 『2011 비전과 과제 : 열린세상 유연한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부표 1〉 산업별 국내총생산(고성장 시나리오)

(단위: %)

	경상구성비				불변증가율			
	1990	2000	2010	202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1. 농림수산업	8.4	4.5	2.6	1.7	3.2	2.0	0.8	0.4
2. 광업	0.8	0.3	0.1	0.1	0.1	-1.5	-1.1	-0.4
3. 음식료품	3.7	3.4	2.5	2.0	5.9	2.5	2.2	2.0
4. 섬유 의류	3.3	1.3	1.4	1.0	4.7	-4.9	3.1	1.9
5. 목제품	0.3	0.3	0.1	0.1	6.0	-1.8	1.2	1.3
6. 지제품 · 인쇄출판	1.3	1.4	1.5	1.3	13.2	2.8	2.8	2.5
7. 화학제품	3.4	3.3	3.1	2.7	13.4	7.5	4.3	2.8
8. 석유 · 석탄제품	0.5	3.7	1.2	1.0	6.6	13.1	6.8	4.5
9. 고무제품	0.3	0.4	0.3	0.2	10.2	7.5	3.9	2.7
10. 비금속광물제품	1.6	1.1	1.3	1.2	11.8	3.0	4.4	3.3
11. 일차금속제품	2.6	2.7	1.9	1.7	14.1	7.1	4.5	3.0
12. 조립금속	1.1	1.1	1.4	1.4	16.0	1.2	5.0	4.0
13. 일반기계	1.6	1.5	2.8	3.6	18.0	9.0	6.3	5.3
14. 전기 · 전자	4.2	6.0	4.9	4.9	20.5	19.4	6.9	5.1
15. 수송기기	3.8	4.4	4.1	3.7	21.9	10.6	5.7	4.0
16. 정밀기기	0.3	0.4	0.5	0.5	11.9	11.3	2.5	3.3
17. 기타 제조업	0.8	0.4	0.7	0.9	14.8	-3.8	3.3	3.3
18. 전기 · 가스 · 수도	2.1	2.8	2.2	2.5	15.3	9.7	6.3	4.7
19. 건설업	11.4	8.2	13.2	12.6	10.2	2.0	4.2	3.3
20. 도소매 · 음식 · 숙박	13.5	12.0	10.8	10.2	9.8	5.6	5.3	4.4
21. 운수 · 보관 · 통신	6.7	6.5	7.8	7.8	8.1	9.4	5.6	4.0
22. 금융 · 보험 · 부동산	11.7	15.3	15.3	16.9	9.6	7.3	6.0	4.7
23. 공공행정 · 국방	4.2	4.2	4.1	3.9	2.4	1.6	3.6	3.1
24. 사회 · 개인서비스	12.2	14.8	16.0	18.2	8.7	5.0	5.8	4.9
제조업	28.9	31.5	27.7	26.2	11.1	8.1	5.2	3.9
서비스업	44.1	48.5	49.9	53.1	9.1	6.5	5.7	4.5
국내총생산	100.0	100.0	100.0	100.0	8.6	6.1	5.7	4.0

자료: 이진면 · 김동석 · 김민수(2002), p. 69.